

#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시장안정화요인의 우선순위 도출

## Prioritization of Market Stabilization Factors for Virtual Currency Trading

강다연\*, 황중호\*\*  
동명대학교 국제물류학과\*, 동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Da-Yeon Kang(mswcrash@hanmail.net)\*, Jong-Ho Hwang(jongho@tu.ac.kr)\*\*

### 요약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인 자산을 추구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견해도 있으며 가상화폐로 인해 다각화될 수 있는 금융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도 하는 입장의 자산전문가들도 있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은 미성숙한 상황이라 볼 수 있으며, 아직 가상화폐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가상화폐의 거래에 대한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가 시장거래에 있어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평가요인들을 도출하여 중요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주요 평가요인으로는 거래환경의 관점, 기술적 관점, 이익적 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하부요인들의 중요도는 AHP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중심어 : | 가상화폐 | AHP | 우선순위 | 위험 | 안정성 |

### Abstract

Recently, interest in virtual money has been growing. There is also a view that it is safe to pursue traditional assets, and some wealth experts are expecting positive changes in the financial society that can be diversified due to virtual money. Since the virtual money market is an immature situation and the stability of the virtual money is not yet secured, the potential risk of the transaction of the virtual money is highly likely to occur. In this study, we try to derive important priorities by deriving the evaluation factors that can contribute to the stabilization of the virtual currency in the market transaction. The main evaluation factors were selected from the viewpoint of the transaction environment, the technical viewpoint, and the profit viewpoint, and the importance of the subordinate factors was analyzed by applying AHP.

■ keyword : | Virtual Money | AHP | Order of Priority | Risk | Stability |

## I. 서론

경기 침체의 여파가 각종 투자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내에서는 새로운 투자처 모색에 혈안이 된 투자자들이 위험부담이 큰 투자 상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일확천금의 꿈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대안화폐인 가

상화폐(이하 비트코인)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 기술적, 제도적 관점에서 투자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기존의 화폐에 비해 효용가치가 높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자자들에게는 뜨거운 감자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회적 측면에서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1].

접수일자 : 2018년 06월 20일  
수정일자 : 2018년 07월 03일

심사완료일 : 2018년 07월 03일  
교신저자 : 황중호, e-mail : mswcrash@hanmail.net

디지털경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대안화폐는 반드시 필요하며 안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2]. 대안화폐가 사회적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 상품의 가치를 넘어 기술적, 제도적 안전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노력은 물론 지역적 한계를 넘어 세계적인 공조 체제의 제도화와 관련기술의 발전이 동반되어야 현실성 있는 화폐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이다.

이질적 요인은 일반적 요인 관점에 비추어 볼 때 통상적으로 거부반응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거부반응은 지역을 넘어 영역이 확대될수록 파장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특히 기능적 역할 비중이 클수록 관심이 극에 달해 쉽게 수용되지 않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하는 가상화폐의 경우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에서는 사회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해서 제도 및 기술적 문제해결에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3].

2018년 2월 세계 각국은 가상화폐가 사회 경제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특히 한국, 미국, 중국, 인도 등의 국가들이 가상화폐 규제에 공조하면서 비트코인거래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4]. 국내시장의 경우 가격균형 현상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거래실명제를 앞두고 난황을 겪고 있다[5]. 중국은 국내의 가상화폐 거래 수단을 전면 차단하였고, 인도 역시 규제대열에 합류를 하였으며, 미국도 가상화폐 거래소와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규제에 박차를 가하는 듯 보였으나 미국 의회에서 반전이 일어나면서 규제분위기가 다소 가라앉은 상태이다[6][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있어 안정적인 결제 수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평가되어야 할 중요요소들을 선정하여 각 요소들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화폐의 불안 요인들을 해소하는데 보탬이 되어 미래사회가 필요로 하는 보다 안정적인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II. 선행연구

### 1. 가상화폐 거래의 현황 및 문제점

가상화폐와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중심에는 비트코인이 있다. 비트코인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올린 논문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으며 2016년 영국의 BBC에 의해 호주 사업가 크레이그 스티븐 라이트라는 인물로 밝혀졌다[8]. 비트코인 외에도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이더리움, 대시, 라트코인 등이 존재한다[9]. 이 모두는 블록체인 기반에서 운영되고 있는 전자금융 거래 시스템 화폐이다[10]. 그리고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현재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화폐거래방식이 기존의 중앙규제 방식의 거래가 아닌 Peer to Peer(P2P:개인 간 거래)거래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11].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비트코인을 내세운 이유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형 화폐의등장이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화폐구분에 있다. 화폐는 크게 실물화폐와 대안화폐로 구분되는데 대안화폐에 포함되는 비트코인이 쌍방향 가상화폐라는 점에 주목해야할 것이다[12]. 중요한 것은 막연한 규제로서 가상화폐의 활성화를 잠재울 수 없다는 점에 대해 많은 연구자가 공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최근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열기가 냉운을 반복하면서 시장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기에서 서술하였듯이 이러한 이상 열풍의 원인에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 안정적인 투자처 부재 등이 대표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다. 문제는 가상화폐가 화폐라는 점에서 기대치가 부각되어야 함에도 투자가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화폐로서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우선,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 관점을 정부규제 및 기술적 측면으로 구분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정부규제 측면에서의 가상화폐에 대해 살펴보면 기존 화폐 유통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가능성과 투기로 인한 사회 경제 혼탁 가능성을 원인으로 들 수가 있겠다[13]. 기술적 측면에 있어서는 안정적이지 못한 시스템 운영과 해킹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들고 있다[14]. 이러한 문제관점을 해소하기 위해 먼저 정부규제 측면에서는 가상화폐가

등장하기까지의 시행착오의 결과를 분석해서 보완책 및 규제대책 마련이 요구되며, 그 예로 조세회피, 범죄 활용, 투기, 시스템 공격 위험, 불안정한 가치변동과 같은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들 수가 있겠다[12]. 기술적 측면에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 경제는 많은 변화 및 가능성을 목격했고 불완전 요소에 대해서는 기술적 발전을 통해 해결책을 내어 놓았듯 관련 기술이 발전이 시급한 실정이다[8][15]. 단적인 예로 블록체인의 한계라고 볼 수 있는 트랜잭션 수의 확장을 위한 기술적 과제를 들 수가 있겠다[16]. 문제는 기존화폐와 가상화폐의 특징 및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법규제책 및 기술적 대책마련에 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기존의 가상화폐 관련 연구로 황석진(2018)은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의 연구를 하였으며[17], 김진, 전하진(2018)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법적관점과 조세법적 관점으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연구를 하였다[18]. 이외의 연구에서도 법적인 관점과 제도적인 관점에서의 위협적인 문제점을 논의한 연구가 많았다.

## 2. 가상화폐의 안정적 역할에 관한 연구

가상화폐의 거래가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래환경의 관점, 기술적인 관점, 이익적인 관점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먼저 거래환경은 분권성, 직접성, 개방성인 특성을 포함한다[12]. 맹수석(2016)과 이동규(2013)의 각 연구에 의하면 가상화폐(비트코인)는 법정화폐와 전자화폐와는 달리 화폐발행의 권한이 정부, 발행기관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자간 네트워크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행되며 공개장부방식을 취하고 있었다고 기술하였다[14][19]. 또한 김홍기(2014)는 결제수단으로서의 화폐 거래환경에 대해 통용력, 규격화, 신뢰성, 발행량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는데 가상화폐도 이러한 화폐로서의 기능을 수반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유효성 검증과 채굴 절차에 의해 발행량을 조절하는 계약에 의한 통제환경이 아닌 기술적 방법을 사용한 자율적 거래환경에서의 결제수단이라고 하였다[13].

다음으로 기술(네트워크)은 네트워크 속성, 안정성,

운영(신뢰성)과 같은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이 가능하다[19]. 가상화폐(비트코인)의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정승영(2015)은 블록체인 기반의 네트워크에서 거래자간 10분단위의 실시간 암호화 신규블록을 생성 연장하는 거래시스템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으며[20],

인터넷 보드에 거래정보 관측이 가능하도록 공개함으로서 다수선택이 가능한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음을 밝혔다[22]. 이는 가상화폐의 취약점인 중복사용공격을 피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이기도 하다[8]. 기술적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Merkle Root에 기반한 암호 값(해시 값) 도출을 통해 기술적 안정성을 확보와 네트워크 구성원 및 가맹점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져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뢰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21][22].

마지막으로 이익 사항에 있어서는 낮은 거래비용, 경제 활성화, 공동체성 확대와 같은 세부항목을 중심으로 설명이 가능하다[20]. 가상화폐 활용에 따른 이익적 측면에 대해 김홍기(2014)는 빠르고 용이한 결제수단, 낮은 거래비용, 익명성, 통제 가능한 인플레이션을 거론하였으며, 신상화(2015)는 중개기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자화폐, 신용카드와 비교했을 때 수수료 부담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하였다. 또한 신동희, 김용문(2016)은 신속하고 용이한 결제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13][23][24]. 반면 김은경(2016)은 가상화폐 거래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나아가 거래량이 증가하면 거래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5].

이렇듯 현실적인 상황에 있어서 가상화폐는 긍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의 해결과제도 많으나 기술기반인 블록체인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크다[26].

## 3. 계층분석의사결정(AHP)

T. Saaty(1977)에 의해 개발된 AHP기법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비교를 통해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직관을 포함하여 판단하는 의사결정방법론이다. 비구조화된 의사결정 문제를 계층적으로 표현하며, 평가자들의 판단에 대한 논리적인 일관성을 검증할 수 있다. 최상위 계층에 의사

결정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인 의사결정요소를 하위계층으로 구성한다. 계층 간의 종속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하며, 동일 계층 내에서는 독립적인 관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계층구조를 수립하여 의사결정문제를 구조화한다. 평가자로 하여금 의사결정요소 간의 쌍대비교를 수행하게 하며 판단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에 대한 가중치를 추정할 수 있다. 평가의 논리적 정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일관성지수(CI:Consistency Index)와 난수지수(RI: Random Index)를 통해 일관성 비율(CR: Consistency Ratio)을 산출하여 일관성을 평가한다. 일관성 비율이 20% 이하일 경우에는 평가자의 판단에 대해 일관성이 있다고 본다.

### III. 연구설계

####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시장접근이 가능하도록 가상화폐의 안정화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연구모형으로 [그림 1]과 같이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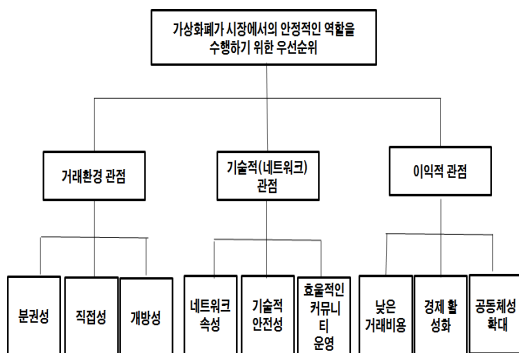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우선, 계층1의 평가요인으로 거래환경 관점, 기술적(네트워크)관점, 이익적 관점으로 선정하였으며 계층2의 평가요인에서는 1계층 각각의 하위요소들을 분류하여 나타내었다. 거래환경관점의 계층 2의 요인으로는 분권성, 직접성, 개방성으로 선정하였으며, 기술적(네트

워크)관점의 계층2의 요인으로는 네트워크속성, 기술적 안전성, 효율적인 커뮤니티운영으로 선정하였다. 이익적 관점의 계층2의 하위요인은 낮은 거래비용, 경제활성화, 공동체성 확대로 분류하였다.

#### 2. AHP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본 연구를 위한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에 따른 구체적 인 설명은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평가기준 및 평가항목 설명

평가기준	평가항목	설명	
계층 1	거래환경 관점	화폐발행이 중앙집권이 아닌 개인간 거래에 의한 거래내역 공개방식을 취함	
	기술적관점	네트워크 속성(연결성, 즉시성, 수평성)을 바탕으로 암호화 코드(안전성)형태의 유통방식에 의한 자율적인 커뮤니티 운영을 통해 조직의 신뢰성을 확보함	
	이익적 관점	거래 수수료, 용이한 결제수단, 자율적인 시장형성이라는 이익을 가져옴	
계층 2	거래환경 관점	분권성	화폐발행의 권한이 정부, 발행기관이 아닌 가상화폐 거래자 네트워크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행
		직접성	개인간 직접 거래방식
		개방성	익명성에 의한 거래내역 공개방식
	기술적관점	네트워크 속성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유통
		기술적 안전성	'안산본위제' 화페로서 암호화 코드에 의해 기록된 내용을 유통하는 방식
		효율적인 커뮤니티 운영	자생적으로 생성된 커뮤니티 조직
	이익적 관점	낮은 거래비용	거래 수수료가 무효이거나 발생하지 않음
		경제 활성화	결제용이성으로 인해 시장에서의 활발한 거래가 기대
		공동체성 확대	거래 참여자에 의한 감시와 규제 형성

### IV. 실증분석

#### 1. 자료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우선순위요소들을 파악하기위해 AHP를 이용하여 9점척도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맞는 전문가의 설문조사 방법을 위해 가상화폐와 관련된 전문가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은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제 1금융권의 은행에 직접방문하여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뒤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하였으며, 총 11부의 설문지 중 일관성 비율(0.2) 기준에 만족하지 못하는 2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9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설문 응답자의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직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부지점장급이 56%, 과장급이 22%, 차장과 팀장급이 각각 11%로 나타났으며, 근무년수가 15년에서 20년 이상이 44%, 10년에서 15년 미만이 44%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전문가적 평가방법 설문 결과를 입증 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 또한 가상화폐의 관심도의 높음이 100%로 모두 충족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표본대상의 특성

분류	내용	인원수(명)	비도(%)
직급	과장급	2	22%
	차장급	1	11%
	팀장급	1	11%
	부지점장급	5	56%
연령	30세~40세 미만	1	11%
	40~50세 미만	3	33%
	50세 이상	5	56%
근무년수	5~10년 미만	1	11%
	10~15년 미만	4	44%
	15~20년 이상	4	44%
가상화폐 관심도	높음	9	100%
	낮음	0	0%

##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우선순위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략적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 속성들을 쌍대비교하여 행렬을 작성하여 속성들 간의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HP설문은 2018년 1월부터 2월까지 은행업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AHP 응답에 대한 조사결과는 Expert Choice 2000을 적용하였으며, 인구통계적 특성은 SPSS 20.0을 적용하였다.

먼저, AHP 설문은 응답자가 일관성을 가지고 평가항목에 응답했는지 검증하기 위해 일관성 비율(CR) 값을 계산하여 응답의 신뢰성을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CR 값이 0.1 이하이면 응답자의 설문결과는 합리적 일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0.2 미만이면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0.2 이상일 경우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검토하게 된다[14]. 본 연구에서는 표 3과 같이 CR이 0.2를 초과한 2명의 의견은 최종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총 9명의 의견을 최종분석에 적용하였다.

## 3. AHP 분석결과

AHP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제 1계층의 상대적 중요도는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환경관점(0.668), 이익적 관점(0.181), 기술적(네트워크)관점 (0.151)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표 3. 제 1계층 분석결과

제1계층	중요도	우선순위
거래환경관점	0.668	1
기술적 관점	0.151	3
이익적 관점	0.181	2
일관성 비율	0.02	

표 4. 제 2계층 분석결과

제1계층	중요도	제2계층	중요도	우선순위
거래환경 관점	0.668	분권성	0.652	1
		직접성	0.15	3
		개방성	0.198	2
기술적 관점	0.151	네트워크속성	0.175	3
		기술적 안전성	0.442	1
		효율적인 커뮤니티 운영	0.384	2
이익적 관점	0.181	낮은 거래비용	0.191	3
		경제 활성화	0.483	1
		공동체성 확대	0.326	2

제 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거래환경관점에서는 분권성(0.652), 개방성(0.198), 직접성(0.15)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술적(네트워크)관점에서는 기술적 안전성(0.442), 효율적인 커뮤니티 운영(0.384), 네트워크 속성(0.175) 순으로 나타났다. 이익

적 관점에서는 경제활성화(0.483), 공동체성 확대(0.326), 낮은 거래비용(0.191)의 중요도 순으로 분석되었다.

각 계층별 요인들의 최종 우선순위를 [표 5]와 같이 도출하였다. 가상화폐 시장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한 경쟁요인에 대한 세부 요인들의 최종 우선순위의 결과를 보면, 분권성(제1계층: 거래환경 관점)이 가장 높은 중요도로 0.436으로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개방성(제1계층: 거래환경관점)의 중요도가 0.132로, 3순위가 직접성(제1계층: 거래환경관점)의 중요도가 0.1로 나타났다. 제4순위가 경제활성화(제1계층:이익적 관점)로 중요도가 0.087로 나타났으며, 제5순위는 기술적 안전성(제1계층:기술적 네트워크 관점)으로 0.067의 중요도를 보이고 있다.

표 5. 종합 중요도 분석결과

제1계층	제2계층	중요도	우선순위
거래환경 관점	분권성	0.436	1
거래환경 관점	개방성	0.132	2
거래환경 관점	직접성	0.1	3
이익적 관점	경제 활성화	0.087	4
기술적 관점	기술적 안전성	0.067	5
이익적 관점	공동체성확대	0.059	6
기술적 관점	효율적인 커뮤니티 운영	0.058	7
이익적 관점	낮은 거래비용	0.035	8
기술적 관점	네트워크속성	0.026	9

## V. 결론

기존의 화폐 체계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이상적인 화폐를 구현하려는 동기에서 출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 가고 있다. 화폐의 범용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흐름 속에 정부에서의 제도화를 꺼려하고 있는 현황에서 가상화폐의 시장에서의 흐름의 안정적인 거래가 중요시 되어야 할 사항으로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화폐가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제 1계층에서는 거래환경의 관점, 이익적 관점, 기술적(네트워크)관점의 순으로 평

가되었으며, 제 2계층의 요인의 중요도에서는 거래환경의 관점에서는 분권성이 기술적(네트워크)관점에서는 기술적 안정성이, 이익적 관점에서는 경제활성화 요인이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분석결과에서는 우선순위 1순위로 제 1계층인 거래환경 관점에서 분권성이 가장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2순위로는 제 1계층 거래환경 관점의 개방성이, 3순위로는 제 1계층 거래환경 관점의 직접성으로 도출되었다. 이는 가상화폐의 특성인 네트워크에 의해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화폐 발행의 권한과 개인간 익명성에 의한 거래내역 공개 방식에 대해서 그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거래를 행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결과이며, 위법을 행하지 않는 안정화된 거래가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결과로 해석되어진다.

본 연구결과는 가상화폐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의 관점에서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적으로 가상화폐 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법제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인 합의와 정책적인 합의가 필요하며 가상화폐시장의 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가상화폐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학문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가상화폐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평가할 항목요인들을 도출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가상화폐 거래의 안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구축된다면 그에 따른 보다 가상화폐 안정화에 기여하는 요인과 저해하는 요인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조사대상자를 은행업전문가에 국한하여 설문하였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산업별군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도출된 결과에 대한 비교·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선에 주력할 수 있도록 기여할 필요성이 있다.

## 참 고 문 헌

- [1]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도전과 과제,” 지급결제조사자료 2017-1, pp.1-98, 2017.
- [2] Hyundai Research Institute, “Current Situation and the Forecast of the Virtual Currency,” Vol.14, No.12, pp.1-14, 2014.
- [3] 맹수석, “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상사법연구, 제35권, 제4호, pp.137-168, 2017.
- [4] <http://news.heraldcorp.com/>, 2018.2.9. 기사 채구성.
- [5] <http://www.asiae.co.kr/>, 2018.1.30. 기사 채구성.
- [6] <http://news.chosun.com/>, 2018.2.6. 기사 채구성.
- [7] <http://decenter.sedaily.com/>, 2018.2.19. 기사 채구성.
- [8] N. Satoshi,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 Technical report, bitcoin.org, 2008.
- [9] B. Vitalik, “A Next Generation Smart Contract & Decentralized Application Platform,” Ethereum White Paper, 2014.
- [10] R. V. Francois, “Bitcoin: A Primer,” 317 Chicago Fed Letter, 2013.
- [11] B. Jerry and C. Andrea, “Bitcoin: A Primer for Policymakers,” 1st ed. 2013.
- [12] 조희정 외, “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 권력구조에 대한 영향,” 비교민주주의 연구, 제11권, 제1호, pp.47-87, 2015.
- [13] 김홍기, “최근 디지털 가상화폐 거래의 법적 쟁점과 운용방안,” 증권법연구, 제15권, 제3호, pp.377-431, 2014.
- [14] 이동규, “비트코인의 현황 및 시사점,”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지급결제조사자료 2013-2, p.1-46, 2013.
- [15] H. K. Lee, “A Study on the Legal Problems of Virtual World in Japan,” Journal of Korea Payment and Settlement, Vol.5, No.1, pp.115-134, 2011.
- [16] 이지은, 박찬익,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의 레이든 네트워크 분석 및 평가,” 2017년 한국소프트웨어융합학회대회 논문집, pp.1484-1486, 2017.
- [17] 황석진 “가상화폐의 악용사례와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9권, 제2호, pp.585-594, 2018.
- [18] 김진, 전하진, “가상화폐가 부동산 거래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부동산학회지, 제36권, 제1호, pp.227-240, 2018.
- [19] 맹수석, “일본의 지급결제제도의 최근 규제 동향과 시사점,” 한국비교사법학회, 제23권, 제2호, pp.433-468, 2016.
- [20] 정승영,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의 세법상 분류와 과세,” 한국국제조세학회 조세학술논문집, 제31권, 제1호, pp.85-140, 2015.
- [21] T. Sullivan, “Transparency, Trust, and Bitcoin,” Harvard Business Review, 2015.
- [22] 한국금융연구원(KIF), “비트코인 거래 메커니즘의 분석과 시사점,” KIF VIP 시리즈, 2014-11, pp.1-82, 2014.
- [23] 신상화 “비트코인의 발전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재정포럼, 제5호, pp.22-42, 2015.
- [24] 신동희, 김용문, “국내 소비자들의 비트코인 사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호, pp.24-41, 2016.
- [25] 김은경, “유럽연합 내 핀테크 산업과 법의 적용,” 한국금융소비자학회, 제2016권, 제1호, p.1, 2016.
- [26] 서정호, 이대기, 최공필, 「금융업의 블록체인 활용과 정책과제」, KIF 금융시리즈 2017-2, pp.1-130, 2017.

저 자 소 개

강 다 연(Da-Yeon Kang)

정회원



- 2006년 2월 :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경영학사)
- 2008년 2월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경영학석사)
- 2014년 8월 :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경영학박사)

▪ 현재 : 동명대학교 국제물류학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보안정책관리, 항만물류보안, 데이터베이스

황 중 호(Jong-Ho Hwang)

정회원



- 1994년 2월 : 일본 TAKUSHOKU 대학교 상학과(경영학사)
- 1996년 2월 : 일본 TAKUSHOKU 대학교 상학연구(경영학석사)
- 1999년 10월 : 일본 TAKUSHOKU 대학교 상학연구(경영학박사)

▪ 2000년 2월 ~ 현재 : 동명대학교 경영정보학과 교수

<관심분야> :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데이터베이스, 경영자료분석, 데이터마이닝, 비즈니스특허모델